

## 위전절제술 시에 비장 절제가 위암환자에 미치는 영향: 전향적 무작위 연구의 결과

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

유완식, 최규석, 정호영

(배경 및 목적) 상부 위암 환자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위전절제술이다. 그러나 이 때 비장을 절제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.

(대상 및 방법) 위전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 207명을 대상으로 비장합병절제가 술 후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향적 무작위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.

환자들은 수술 중에 컴퓨터 난수 발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에 따라서 비장을 보존하거나(보존군), 비장을 절제하였다(절제군).

(결과) 환자들은 103명의 보존군과 104명의 절제군으로 구성되어 졌으며, 보존군에서 1명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절제군에서는 2명이 사망하였다. 보존군의 8.7%에서, 절제군의 15.4%에서 각각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. 절제군에서 보존군보다 5년 생존율이 더 높았으나 이것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(55.7%: 48.6%;  $p=0.4495$ ).

(결론) 위전절제술 시에 비장절제가 생존율에서 유리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.